

# 후보간 합종연횡... 선관위 3대 고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에 임박해 후보간 합종연횡이 진행되면서 선거법 해석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후보간 합종연횡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올해의 경우 공식 선거 운동이 개시된 이후 이합집산이 이뤄지는 특이한 현상을 보이고 있어 이를 합법 선거운동으로 볼지, 불법 선거운동으로 볼지에 대한 선례가 없는 탓이다.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의 후보단일화가 대표적인데, 후보단일화 토론회 허용 여부와 단일화 여론조사 결과 공표방식이 핵심 검토사항이다.

선관위는 2002년 대선 때 민주당 노무현, 국민통합21 정몽준 후보의 단일화 TV토론은 1회만 허용한다고 결론냈지만, 선거운동 개시전이었던 당시 상황과 달리 이번에는 선거운동 개시 이후에 벌어진 일여서 고민이 생긴다.

선관위 관계자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토론회 생중계를 허용할지, 아니면 생중계가 다른 후보와의 형평성을 침해하는 것인지가 쟁점"이라고 말했다. 다만 선관위는 생중계가 아니라 두 후보간 토론회를 취재한 뒤 이를 지면에 보도하는 형태는 합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여론조사 공표금지 부분도 논란대상이다. 선거법상 13일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일 투표마감시각(19일 오후 6시)까지 공표할 수 없기 때문에 13일 이후 여론조사로 단일화를 결정할 경우 발표방식에 따라 이 조

항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무소속 이회창, 국민중심당 심대평 후보간 후보단일화의 경우도 무소속 후보자가 특정정당의 지지 또는 추천 받았음을 표방할 수 없다고 규정한 선거법에 위배되는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

문구만 보면 이 후보가 국민중심당의 지지를 받았다고 표방할 수 없다는 뜻이지만, 법조문의 취지는 무소속 후보가 자신에게 유리한 선거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허위로 유력정당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주장을 못하게 하려는데 있었다는 점에서 법해석이 요한다. 선관위는 이르면 이날 중 검토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 ① 沈, 曁 선대위장 가능?

-무소속이 정당지지 받을 수 있나

## ② 鄭-文 단일화 TV토론?

-선거운동기간중 전례 없어...형평성 시비

## ③ 鄭-文 여론조사 발표?

-13일 이후 금지...승패만 밝힐 경우도 논란



광주시선관위와 광주지역 14개 종교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5일 오전 선관위 회의실에서 17대 대선 간담회를 갖고 투표참여를 당부하는 대시민 호소문을 채택한 뒤 공명선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위직기자 jwji@kwangju.co.kr

# 남북경협위, 합의문 초안 본격 조율

## 3통문제 추후 분과위 논의 등 일정·의제 합의 수준 그칠 듯

남북은 제1차 경제협력공동위원회 이틀째인 5일 분야별 대표접촉과 실무접촉을 통해 산하 분과위원회의 개최 일정과 의제에 의견집근을 이루고 이를 담은 합의서 문안 조정작업에 들어갔다.

남북은 이날 밤 늦게까지 문안 조정작업을 벌여 회의 마지막날인 6일 종결회의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우리 측은 합의문에 향후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을 준비하기 위한 비전과 방안들을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으나 북측에서는 정상회담 및 총리회담 합의사항과 관련된 내용을 우선 협의하자며 이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 대변인인 김중태 통일부 경협본부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남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이틀째인 5일 광명시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을 방문한 북측 전승훈 대표단장이 전시된 프라이드 차량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북은 위원 접촉과 실무 접촉을 통해 주요 경협사업에 대한 조속한 이행과 이에 따른 현지 조사 및 분과위 일정 등에 상당부분 공감하고 의견집근을 이뤄가고 있다"면서 "오늘 낮 그동안 논의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합의서 문안 초안 조정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의 출입시간 확대와 인터넷 및 유·무선서비스 시작, 안변과 남포 지역의 조선협력단지 건설, 개성-평양 고속도로 및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 등 경협분야의 총리회담 합의사항을 구체화하는 작업은 향후 산하 6개 분과위로 넘겨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연합뉴스

# "문산~봉동 화물열차 군사보장 합의"

## 남북 군사실무회담

남북은 5일 오전 10시 관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군사실무회담을 열어 문산~봉동 화물열차 운영을 위한 군사보장합의서 체결 문제 등을 협의했다.

군사실무회담에는 남측 문성묵(준장 진급자) 국방부 북한정책팀장과 북측 박립수 대좌(대령~준장 사이

계급)를 수석대표로 각각 3명의 대표가 참석했다.

남북은 앞서 총리회담과 후속 실무접촉에서 오는 11일부터 이 기간에 화물열차를 운영키로 하고 매일 오전 9시에 문산역을 출발, 오후 2시에 귀환하는 운행 시간표도 확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오늘 회담에서는 화물열차 운영을 위한 군사보장합의서를 체결하는 문제가 가장

우선 순위로 논의될 것"이라며 "이미 양측이 합의서 초안을 교환했기 때문에 서명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이날 군사실무회담에서는 남북 관리구역의 3통(동행,통신,통관)을 위한 군사보장합의서 체결 문제도 논의됐다.

남북은 관리구역 내 통행시간을 개성공단의 입,출입 시간대에 맞게 확대하는 한편 관리구역의 입,출입자 명단을 3일 전에 제출해야 하는 현행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 등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 대선후보 6인 'TV토론' 대결

오늘 저녁 8시부터 2시간  
북핵 문제 '주도권 토론'  
군소후보는 13일 밤 개최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한나라당 이명박, 무소속 이회창, 민주노동당 권영길, 민주당 이인제,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등 대선후보 6인간 첫 합동토론회가 6일 중앙선관위 주최로 열린다.

이날 토론회는 정치·통일·외교·안보 분야를 주제로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되며 KBS와 MBC를 통해 생중계된다.

후보별로 각각 2분, 1분30초씩의 모두발언과 마무리 발언 기회가 주어지며 북핵 문제를 주제로

후보 6인이 돌아가며 차례로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TV 토론회 참석자는 토론대상을 국회 의석수 5석 이상 정당 후보자, 직전 선거에서 득표율 3% 이상을 기록한 정당의 후보자, 후보등록 마감일인 26일까지 30일간의 여론조사에서 5% 이상의 지지율을 기록한 후보자로 한정된 중앙선관위 토론회위원회 기준에 따라 선정된 것이다.

이들 6인 후보는 정책과 자질 등에서 비교우위를 내세워 적임자

임을 강조할 예정이며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북관, 북핵해법 등을 둘러싸고 대립전선이 형성될 전망이다.

또한 검찰의 BBK 수사결과 발표가 이뤄진 바로 다음날 진행되는 것이어서 검찰 수사결과에 대한 공방도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주요 후보간 합동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군소후보들을 대상으로 13일 밤 11시부터 2시간 동안 별도의 방송 합동토론회도 개최된다. /연합뉴스

## 중 인구 2033년 15억명

세계 최대 인구대국 중국이 한 차례 정책에도 불구하고 2033년에는 15억의 인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징 뉴스는 베이징 인민대학 자이 전우이 인구연구소 소장을 인용해 현재 13억명인 중국의 인구가 2020년까지 14억5천명에서 14억6천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전우이 소장은 "현재 중국은 매년 1천600만명이 늘고 있는데 2012년에는 연간 인구증가가 1천900만명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은 1970년 이후 산아제한 정책을 시행, 농촌 지역의 경우 2명의 자녀를 허용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자녀를 한 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베이징포터=연합뉴스

# "한국인, 재벌 부패 질렸지만 심한 타격엔 우려"

## NYT 삼성비자금 관련 보도

뉴욕타임스(NYT)는 삼성 비자금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 한국인들이 재벌의 부패에 질렸지만 이들 대기업에 대한 심각한 타격이 경제 번영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고 4일 보도했다.

신문은 그 이유로 한국의 경제가 몇 안되는 이들 대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시민들의 생활에 미치는 대기업의 영향이 광범위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에 전자부품을 납품하는 그

린 C&C 테크의 최해평 대표는 삼성이 타격을 받으면 자신들도 충격을 느낀다면서 삼성이 수사 때문에 위축되고 투자를 줄인다면 자신들과 같은 소규모 기업들은 줄줄이 문을 닫을 것이라고 우려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이 때문에 부패 사건이 거의 매년 한번씩 재벌을 흔들 정도로 패탄화했지만 뇌물로 기소된 경영진들은 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이유로 재판부로부터 통상 징역유예를 선고받는 등 약한 처벌을 받고 풀려나 뒤 모두 업무에 복귀해

다들 부패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경영을 계속한다고 소개했다.

신문은 이에 따라 많은 한국인들은 이번 삼성 사건의 경우도 전과 달라야 한다고 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또 삼성은 자신들이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부인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는 한국 경제의 자부심으로 여겨지는 삼성이 비판론자들이 주장하는 '부패 문화'에 여전히 잡혀있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욕=연합뉴스

국립중앙의료원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캠페인  
대한 "소액자가 많은 좋은광고상"을 수여하였다.

### "엄마 손은 약손!" 엄마 손은 바로 '사랑'입니다!

어릴 적, 배가 아플 때, 엄마 손은 복통약이었고,  
머리 아플 때는 두통약이고 해열제였습니다.  
아플 때마다 사랑으로 낮게 하는 엄마의 손  
"엄마 고맙습니다"

엄마의 사랑이 깃든 약손처럼,  
사랑은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좋은 약이 됩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코엔자임 Q10 함유  
항산화영양제  
국제-에이스  
**큐텐**  
[연질캡슐]

비타민 A, C, E의 보충  
-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완화  
- 피부 노화 방지, 노년기  
- 눈의 건조감 완화, 야맹증  
- 심장 질환 등 여러 만성질환  
- 면역, 근육의 강화, 잇몸출혈,  
비출혈 예방  
- 알코올, 담배 및 스트레스로 인한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수축기혈압 상승  
예방의 보충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국제약품  
www.kukje.com  
고객센터 전화: 080-022-2200